

선군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불멸할 항일의 녀성영웅의 혁명생애

궁 영 속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는 전체 군대와 인민, 청년학생들은 어머님을 더욱 그리워하며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한생을 가슴뜨겁게 추억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의 한생은 길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고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한생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290페이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후손만대가 영원히 추억하고 혁명가의 고귀한 귀감으로 끝없이 전해갈 불멸의 혁명생애를 수놓으신 백두의 녀장군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이시다.

인류력사는 김정숙동지와 같이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한평생 총을 잡으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것처럼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굴의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를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민족수난의 시기에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어려서부터 나라 잃은 민족의 불행과 온갖 고초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시며 성장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피어린 항일혁명투쟁과 새 조국건설로 이어진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주체혁명위업의 년대기우에 빛나는 자욱을 새기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생애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된 가장 값높은 한생이였다.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우선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귀감을 창조하신 친위전사, 호위전사의 한생이였다.

수령을 결사옹위하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근본으로 된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는것이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불변의 신조로 간직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신변호위사업을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시고 전 생애에 걸쳐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목숨으로 지키시였다.

우리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전을 벌려 사령부의 안전을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웨치시며 싸창을 랑손에 틀어쥐시고 잘루목을 지켜내여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한 주체 25(1936)년 8월의 무송현성전투와 홍기하전투, 대사하치기전투, 황구령기지전투를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수많은 전투들은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위훈을 아로새기며 우리 혁명투쟁력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류레없이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총알이 뚫지 못한다는 명주숨외투를 지어드리시고 자신의 머리칼을 숨아 신발갈개를 만들어 올리신 것과 령하 40℃의 혹한속에서 수령님의 옷을 빨아 몸에 품어 말리워드리신 감동깊은 사실들은 수령결사옹위로 한생을 빛내여오신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품모를 보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조국건설시기에도 항일혁명투쟁시기와 다름없는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고 안녕을 지켜드리느것을 력사와 인민이 자신에게 맡겨준 성스러운 임무로 간주하시고 최선을 다하시였다.

해방후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긴장하였으며 도처에서 반동들이 악랄하게 준동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게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할 하나의 임무만이 있다고 하시면서 일가친척들을 찾으시는 일도 뒤로 미루시면서 항일무장투쟁시기와 다름없는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호위병의 임무를 수행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준엄하고 시련에 찬 나날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지켜내신것은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력사적공적으로 길이 빛나고있다.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결사관철한 전위투사의 한생이였다.

주체28(1939)년 2월 청봉밀영에서 혁명의 배신자의 패배주의적책동을 준렬히 단죄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정치, 경제, 군사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수령님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시였다.

주체35(1946)년 2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강연회에 출연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권건설로선을 옹호하신것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지키는 길에서 김정숙동지께서 얼마나 투철하고 견결하시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특히 수령의 명령지시를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신데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받아들이는데서 절대적인 자세와 립장을 견지하시였으며 그 관철에서 사소한 예누리도 모르시였다.

주체26(1937)년 8월 장백현 도천리에서 지하공작임무를 수행하시던 나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국내깊이에까지 나가 당 및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할데 대한 임무를 받게 되시였다. 이때로 말하면 적들에게 체포되시였던 김정숙동지께서 적들의 야수적인 고문을 받은 후파로 하여 사실상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에 보고드려 다른 동무들을 보내던가 건강이 회복된 후 떠나실것을 권고하는 사람들에게 사령관동지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파업을 주시였는데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 그 수행을 뒤로 미루거나 다른 동무들에게 맡긴다면 어찌 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는 참된 혁명전사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머나먼 국내정치공작의 길에 오르시였다.

주체28(1939)년 가을 대부대선회작전에 필요한 600벌의 군복을 한달동안에 제작할

데 대한 명령을 받으시였을 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결사관철의 의지로 이겨내시며 20일동안에 앞당겨 제작해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장과 농촌, 어촌과 학교들을 찾으시여 수령님의 새 민주조선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누구도 따르지 못할 고결한 충정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불멸의 혈통으로 깊이 새겨져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빛으로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충직한 친위전사가 되시여 우리 인민이 5천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받아안은 수령복의 행운을 굳건히 지켜주신 김정숙동지의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생애는 다음으로 총대와 함께 선군혁명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을 쌓으신 백두의 녀장군, 위대한 혁명가의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높이 받들어 주체24(1935)년 9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신것은 김정숙동지의 생애에서 역사적전환점으로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심으로써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시는 나날에 항일의 녀성영웅, 백두의 녀장군으로서의 숭고한 품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실 수 있게 되였으며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수령님의 선군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된 빛나는 한생으로 수놓아지게 되였다.

혁명의 총을 잡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국해방성전에 용약 뛰어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는 날에 다지신 맹세를 지켜 영웅하게 싸우심으로써 항일무장투쟁사에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위훈을 아로새기시였다.

입대후 첫 전투인 처창즈유격구방어전투에서부터 정확한 판단력과 즉시적인 결심채택, 능란한 지휘술을 보여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후 내도산방어전투와 립강현 6도구전투, 무산군 립강리전투와 홍두산전투 등 무수한 전장들에서 무비의 담력과 용감성, 출중한 군사적예지, 백발백중의 신묘한 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시고 전투승리에 크게 기여하시였다.

《백두산 녀장군 신출귀몰 천지 주름잡으며 왜놈 죽인다》, 《백두산 녀장군 신흥 단천출현 총 한발에 일본놈 백 꺾는다 아 그 이름 김정숙(**김일성**장군 친위병)》, 백두산과 국내의 이르는 곳마다 아릅드리나무들에 새겨진 이 글발들은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출중한 군사적자질과 품모, 위훈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주는 불멸의 글발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총을 잡고 일제와의 싸움에서 백두산녀장군으로서의 명성을 높이 떨치시였을뿐아니라 능숙한 정치공작원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구상을 실현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일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도천리, 신갈과, 무산, 연사, 풍산, 신흥 등 압록강과 두만강연안, 국내깊이의 수많은 지역들에서 벌리신 눈부신 지하공작활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해발이 되시여 광범한 군중을 반일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전민항쟁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신 영웅적투쟁의 거룩한 자욱으로 빛나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결전장에서 걸으신 선군의 길은 해방

후 수령님의 건군로선을 받들어 정규무력건설과 강화발전에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던 나날에로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군사정치간부를 양성하는것을 정규군건설에서 선차적인 사업으로 보시고 주체34(1945)년 11월에 평양학원을, 주체35(1946)년 4월에는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내오도록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에 맞게 군사학교들의 교육사업이 옹바로 진행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는것을 혁명무력건설의 근본문제로 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2월 평양학원개원식장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고 수령님을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로 칭송하는 구호를 모시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군대가 수령의 군대로서의 정치사상적풍모를 갖추수 있게 하시였다.

그리고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비롯한 군사교육기관들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학교들의 교육실태와 훈련정형을 료해하시고 군사교육에서 주체를 세워 학습과 훈련을 우리 식대로 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갖 조직된 인민군부대들이 하루빨리 정규군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적국방공업의 굳건한 토대를 다지는 사업에도 온갖 심혈과 열정을 다 바쳐오시였다.

참으로 총대와 함께 한생을 빛내이시며 선군조선의 자위적국방력의 튼튼한 밑뿌리를 다져주신것은 김정숙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생애는 다음으로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의 한생이였다.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혁명가적풍모의 근본바탕이였다.

김정숙동지의 가슴속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 혁명동지들에 대한 사랑만이 팍차있었으며 생애에는 자신을 위한 일이란 하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는 대가로 동지들을 살릴수 있다면 나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웃으면서 죽음의 길을 택할것이다하는것이 김정숙동지의 인생관이였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혁명동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가난한 가정에서 수난 겪는 조국의 딸로 탄생하시여 인민에 대한 사랑과 뜨거운 인정미를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추위도 배고픔도 피로도 다 참으시며 동지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반《민생단》태풍이 온 동만을 휩쓸던 시기 뜨거운 동지애를 발휘하여 최희숙을 서슴없이 보증해주시고 삼도만 능지영에서 옥고를 치르고있던 《민생단》혐의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식사와 약을 가져다주시면서 그들이 혁명적신념을 끝까지 지키도록 고무해주시였다.

주체26(1937)년 무송원정의 나날 힘겨운 행군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웠으나 피로를 무릅쓰시고 우등불가에서 밤을 새워가시며 대원들의 군복과 신발을 손질해주신 사실, 주체28(1939)년 여름 대낮에도 해빛 한점 스며들지 못하는 우중충한 오도양차의 원시림속

에서 열병으로 고통받는 한 녀대원의 손발이 되어주고 병치료를 위해 지성을 쏟아부으신 사실 등은 온갖 고초와 시련을 다 겪으시면서도 언제나 자신보다 먼저 혁명동지들을 생각하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인민들의 고통과 불행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서슴없이 희생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험속에 뛰어들어 이웃들과 동지들을 구원해주시였고 무서운 전염병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여 살려내군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도천리에서 활동하시던 나날 류가촌의 지주가 제 집에서 머슴으로 부려먹던 소녀를 열병에 걸렸다고 하여 외진 산중초막에 내다버린 일이 있었다.

누구도 선뜻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있던 그때 주저없이 초막으로 찾아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녀와 침식을 같이하시면서 희생적인 노력과 뜨거운 간호로 끝내 그의 생명을 구원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는 함께 싸우다 희생된 동지들의 유자녀들을 따듯이 보살펴주시며 훌륭히 키우신데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에 개선하신 직후 항일투사들에게 간고한 투쟁의 나날 홀어져 생사여부를 알수 없는 혁명가유자녀들과 유가족들을 빠짐없이 찾아 잘 돌보아주고 부모들의 뜻을 이은 혁명가로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혁명가유자녀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그들을 우리 당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싶어하는 원아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경대혁명학원에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도록 하심으로써 혁명가유자녀들의 마음속에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시였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간다는 뜻이 뚜렷한 우리 식의 학원제복도안과 견본이 훌륭히 제정되고 원아들에게 꼭 맞게 공급될수 있게 되는데도 원아들을 혁명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친부모도 따르지 못할 뜨거운 사랑으로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을 세심히 돌보아주시면서 그들을 우리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나갈 핵심골간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원아들은 끝없는 행복을 누리며 우리 당의 핵심으로 역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남다른 인정미를 지니신 김정숙동지의 곁에는 언제나 동지들이 많았고 인민들의 한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였다.

진정 한평생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지들과 인민들을 위해서 살아오시며 남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친 삶, 그것이 김정숙동지께서 걸어오신 인생이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생애는 다음으로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민족의 은인의 빛나는 한생이였다.

눈보라 사납고 총포소리 울리는 백두의 밀림에서, 건국의 초행길에서 빨찌산의 아들, 미래의 태양을 한품에 안아키우시여 **김일성**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김정숙동지의 공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받아안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

니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아드님을 품에 안으신 그날부터 심어주고 키워주신것은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었고 수령님을 받들어모시는 혁명전사의 참다운 자세와 립장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훈련기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의 뜻을 물으시는 아드님께 이 존함속에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운 어둠을 가시고 광활한 앞날을 밝혀주며 인민들을 영원히 행복속에 살게 하는 태양이 되어달라는 깊은 뜻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해주시었다.

해방후에도 아드님께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들려주시었으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변모되어가고있는 조국의 벽찬 현실을 목격하도록 하시었다. 이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존경하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수령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드는 자신의 일거일동을 통하여 어리신 장군님께 수령님을 받들어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심어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한 위대한 장군님을 문무를 겸비한 절세의 위인으로 키우시기 위하여 다심한 사랑과 지성을 기울이시었다.

남다른 총명성, 비상한 사고력과 관찰력, 뛰어난 탐구심과 역세고 담찬 기질, 통이 크면서도 섬세하며 너그럽고 소탈한 품성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천품적인 기질이였다.

아드님의 천품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것을 훌륭히 꽃피우시기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 바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들어나갈 빨찌산의 아들, 백두의 장군으로 키우시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항일의 나날 자장가에 총대중시의 숭고한 뜻을 담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드님과 함께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 땅크부대와 비행대를 찾으시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아드님께 심어주시었다. 그리고 뜨거운 축복을 담아 장군복을 지어주시고 유년시절에 벌써 총쏘는 법, 말타는 법, 활쏘는 법도 배워주시며 미래의 령장으로서의 슬기와 담력을 키워나가도록 하시었다.

참으로 김정숙동지께서 백두광명성을 받들어올리시여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시원을 열어놓으신것은 **김일성**조선, 신군조선의 무궁한 역사와 더불어 영구불멸할 업적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조국의 부강번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를 삶과 투쟁의 고귀한 교과서로 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이 땅우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친위전사, 정규군건설